2022년 04월 17일 부활주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167**(통157)장 **즐겁도다 이 날**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사도행전 23장 12~30절(신약p.229)**

> **12.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 **13.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 **14.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 **15.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 **16.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 **17.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 **18.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 **19.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 **20.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 **21.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사십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 **22.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 **23.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삼 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라 하고**
> **24.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 **25.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 **26.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 **27.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 **28.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 **29.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 **30.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 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 말씀선포 /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길

미국의 저명한 방송 설교가 데 한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문의 주춧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주춧돌을 빼내면 구원 계획의 모든 구조가 무너져 가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값은 지불되었고, 하나님의 의는 만족되었으며,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앉아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실 뿐 아니라 성도의 삶에 함께 하시어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하는 자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본문 11절에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밤에 친히 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만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 은혜 손길로 바울을 이끄시고 도와주십니다.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사도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1. 원수의 간계를 미리 알게 하십니다.

- 본문 12~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기 위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나 있습니다. 여기 "동맹했다." 는 말은 헬라어 "쉬노모시안"인데, 이 뜻은 "함께 맹세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지금 공회를 이끌어가는 사조직입니다. 그들은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공회가 사도바울을 재심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세한 자들이 매복했다가 재심을 받기 위해 공회에 출두하는 사도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을 죽이려는 이 음모는 거의 성공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회를 이끄는 사조직이 살인 음모의 사령부가 되고, 사십여 명의 맹세한 자들은 행동대원이 되었습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야합하여 무죄한 사도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태도는 참으로 비종교적인 태도요, 불신앙적인 태도이며, 무자비한 폭력집단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테러집단의 행동이나 다름이 없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는 악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사도바울을 위한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사도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의 은밀한 계획, 치밀한 계획이 바로 사도바울의 생질을 통해 적발되었고, 이 사실이 천부 장에게 보고됨으로 악한자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무지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임재 하셔서 영과 육의 모든 대적의 간계와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며 돕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 본문 22~24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삼 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공회의 유력한 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40명의 특공대를 조직하여 사도바울을 죽이려는 살인 계획을 접했을 때, 천부 장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은밀히 처리합니다. 그는 먼저 사도바울의 생질에게 이 일을 네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치안을 맡은 책임자로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두 가지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첫째, 이 사실을 보고한 사도바울의 생질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이고, 둘째, 사도바울을 지키려는 일에 큰 어려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명령하며, 철저한 보안을 유지케 합니다. 그 다음, 은밀히 사도바울은 이송하기 위한 일을 시작합니다. 먼저 밤 제 삼시에 이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밤 제 삼시는 지금으로는 오후 9시를 의미합니다. 이는 40명의 맹세한 자들이 쉬고 있는 사이, 예루살렘 도성을 빠져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주둔한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사도바울 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송하기 위해 엄청난 군사들이 동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비로운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님은 사도바울 한 사람을 안전히 피신시키기 위해 이방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가장 완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처럼 사도바울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삶의 일들 속에서도, 때론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앞장서 가시며 사랑하는 성도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주간도 모든 성도들이 바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를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3.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 주셨습니다.

- 당시 팔레스틴 총독은 벨릭스 였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 벨릭스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 제11대 총독으로, A.D. 52~58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모친 안토니아의 총애를 받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우스 벨릭스라 개명했던 것입니다. 그는 간교한 수단과 방법으로 출세한 악질적인 탐관오리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의 사학자 타시터스는 벨릭스를 평가하며 "잔인하고 음탕하며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국왕의 대리권을 행사하는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악한 자의 마음을 움직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부 장 글라우디아 루시오의 편지를 받아 읽은 후, 사도바울을 헤롯 궁으로 옮겨 지키게 했습니다. 헤롯 궁은 헤롯대왕이 건립한 궁전입니다. 당시 이 헤롯 궁은 로마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궁전은 일반적으로 요새도 되고, 법정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지하에는 특수한 감방이 준비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그는 특별한 대접을 받아 헤롯 궁에 인도되었고, 로마의 병사들이 겹겹이 둘러 지키는 안전한 곳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최고의 권력자의 보호 속에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40명의 맹세한 자들의 손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도 다 그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세상의 권세 자들을 동원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치 말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호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의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수많은 문제와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번 부활절을 통해 다시 한 번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 치료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영광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160(통150) 무덤에 머물러

◎ 폐 회 / 주기도문